

뉴질랜드의 e-비즈니스 관련 정부정책 및 추진전략

(The Policy and Driving Strategy of New Zealand Government on e-Business)

김민철 * · 김영익 **
(Kim, Min-Cheol · Kim, Young-Ick)

국문 개요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원 활용으로 인한 낙농 및 관광산업분야에서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충분한 수익이 창출되는 축복받은 나라의 대명사격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부국의 안정적 기반을 흔들리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이후, 다양한 측면에서의 산업 안정화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의 활용이 일반화된 정보화 사회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IT 투자로서 그 맥을 이어감을 볼 수가 있으며, 지속적인 정부기관간의 정보 및 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노력과 이러한 시스템의 활용에 있어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 활용 정책을 펴고 있다. 넓은 국토에 비하여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는 민간기업이 인프라를 구성하기에 투자대비 수익 창출 면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지리적 고립성이 심한 국민과 기업의 측면에서는 손쉬운 정보 입수 및 원거리 업무의 처리는 매우 필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뉴질랜드 정부는 민간의 활용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화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실행하게 된다. 대표적 민간참여 정책이 바로 e-Cat이라 불리는 정부와 민간이 동시 주체가 되는 온라인 활용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의 정보화 현황 및 기본 정보,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및 실행 결과에 대하여 논하고 향후 제주도 e-비즈니스 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탐색할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제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조교수

**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연구원 및 경영정보학과 박사과정

I. 서론

1950년대 중반 뉴질랜드는 GNP가 세계 5위안에 드는 부국이었다. 하지만 오일쇼크, 영국의 EEC 연방 합류에 의한 동반자의 상실로 인하여 80년대 초반 20위권 밖으로 밀리는 경험을 하였다. 당시, 어려운 경제상황을 일으키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 직접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경제의 활성화 방안들이 있었고, 이러한 간섭은 오히려 국가적 차원으로 바라보았을 때 생산력 저하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1984년에 집권한 노동당은 시장 경제의 우수성 및 생산성을 인정, 시장의 기능에 최대한의 자율을 보장하고, 정부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데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Earnest & Young, 1996).

1984년 OECD 평균을 밀들던 GNP는 초반 적응기의 부진을 씻어내며, 94년 이후부터 OECD의 평균을 웃도는 안정성을 되찾게 된다. 2005년 세계은행이 창업 소요시간, 행정 절차, 기업 등록비용, 고용과 해고, 투자자 보호 등을 기준으로 전 세계 145개국의 여건을 비교, 발표한 기업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The Doing Business in 2005),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 활동을 행하기 좋은 나라로 뽑혔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인하여 전자정부지수(eGovernment Index)에서 세계상위 15위 안에 들었다(United Nations, 2002).

뉴질랜드는 400만이 채 안되는 인구, 70% 이상의 수출이 낙농업이 차지하며, 제조업 부분이 17%를 밀도는(www.stats.govt.nz) 선진국 형태의 산업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4년 9월8일 발표된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P의 국가 신용등급에서도 AA+를 받는 등 대외 신용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작지만 강한 나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한 것이다. 이러한 뉴질랜드가 전자정부의 구현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www.govt.nz).

뉴질랜드 정부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도입, 활성화로 인한 국가적 생산성의 증대 그리고 정보화의 혁신 속에서 뉴질랜드 정부의 정보화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매우 주도적인 역할은 수행하고 있다(Miller, 2003).

2000년 11월 뉴질랜드의 수도 오클랜드의 e-비즈니스 관련 정상 회담을 통하여 뉴질랜드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뉴질랜드는 e-commerce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천명을 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러한 뉴질랜드의 e-비즈니스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아래와 같다(www.morst.govt.nz).

첫째, 전자정부의 특정부분을 포함, 지도력 및 대화를 이끌어 냄(Leadership and communication, including in particular e-government)

둘째, 비즈니스의 수행능력 함양 및 확장된 공동체의 형성의 지원(Helping to build

capability in business and the broader community)

셋째, e-commerce를 행함에 있어서 가능한 제도적 환경의 보장(Ensuring an enabling regulatory environment for e-commerce)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뉴질랜드의 정책 방향 하에서 뉴질랜드 정부의 정보화 수준 및 정부의 IT를 활용한 기업 지원 상황 그리고 기업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감안한 정보화의 활용 방안에 대한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제주 지역의 e-비즈니스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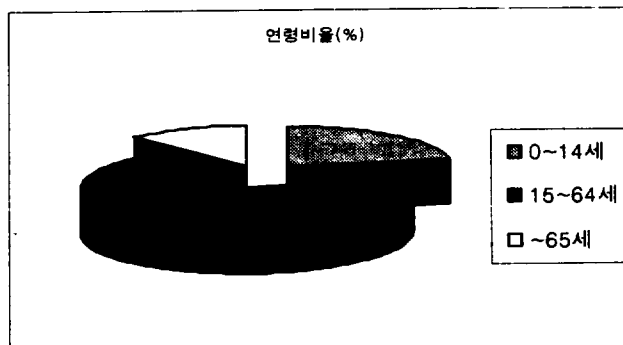
II. 뉴질랜드의 e-비즈니스 현황

3-1. 일반적 정보화 현황

3-1-1. 뉴질랜드의 인구 현황 등

뉴질랜드의 총 인구는 400만 여명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1.2배에 달하는 면적에 1/10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 실질적인 활용면적의 차이는 단순 비교상 10배 이상이 된다. 즉 인터넷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성에 있어 우리나라와의 도시구조와 비교,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불리함을 가지고 있다.

인구 구성을 보면 0~14세는 총인구의 21.9%(남자:443,837, 여자:423,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15~64세는 총인구의 66.5%(남자:1,318,751, 여자:1,307,79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은 총인구의 11.6%(남자199,722, 여자:258,083)를 차지하고 있다(www.stats.govt.nz).***



〈그림 1〉 뉴질랜드 연령 비율

* 225개국 중 163번째

** 225개국 중 76번째

*** 225개국 중 50번째

또한 2002년 CIA 국가별 정보화 관련 발표 자료에 의하면, 뉴질랜드 \$20,200, 한국 \$19,400으로 격차가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액의 구매력을 환산한 자료에서 또한 거의 비슷한 레벨을 보이고 있다(www.cia.gov).

3-1-2.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정보

인터넷 사용자수(2002년 말)는 2백 6만 명으로 202개국 중 38위를 나타내고 있다. 전 인구의 52%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비교대상의 총 202개국 중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연령을 10세 정도로 보았을 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인구는 총 인구의 약 85% 즉 3백4십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아직도 인터넷 사용의 측면은 더 발전의 여지가 많은 부분으로 보이고 있다.*

3-1-3. 도시와 시골간의 인터넷 접근율 차이분석

가정용 인터넷 접근율은 도시와 시골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총 뉴질랜드의 가정용 인터넷 접근율은 37%를 나타내고 있으며,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 30,000명 이상의 대도시지역의 인터넷 접근율이 40%로 가장 높다. 예외성이 보이는 부분은 시골외곽지역의 접근율이 그 뒤를 이어 37%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중, 소도시보다 시골외곽지역의 접근율이 높은 것으로 추론하여 보면, 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1〉 도시와 시골 간 인터넷 접근율 차이

지역	인구	접근율 (%)
대도시	urban with 30,000 or more people	40
중도시	Urban with 10,000 - 29,999 people	28
소도시	urban with 1,000 - 9,999 people	25
시골 중심	rural areas with 300 - 999 people	26
시골 외곽	rural areas with fewer than 300 people	37
뉴질랜드 평균		37

- * 기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인터넷에 연결하는 비율이 높다.
 - 35%의 가구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있다.
 - 25%를 약간 상회하는 가구만이 팩스에 연결되어 있다.
 - 95% 이상의 가구가 전화 연결이 되어있다.
 - 25 가구 중 하나는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중 하나도 연결이 되어있지 않다.
 - 거의 10가구 중 4가구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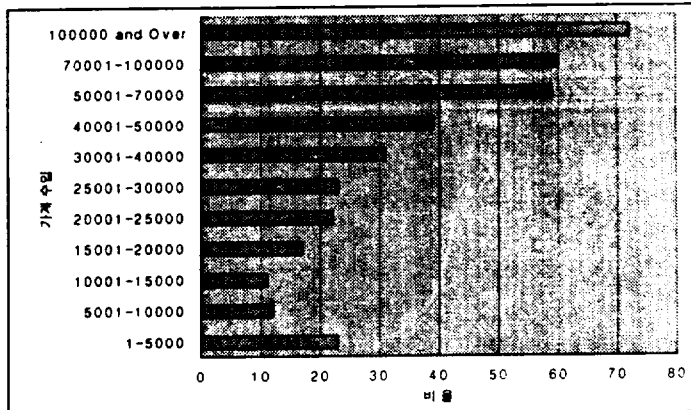
3-1-4. 인구 및 수익에 기반 한 인터넷 사용을 분석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 비율은 다음 그림과 같다. 비록 뉴질랜드가 한국, 아이스랜드, 스웨덴, 미국 등에 비해 비율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나 상당 수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2002년과 2003년의 접속을 증가분이 100명중 5명으로서, 한국, 미국과 더불어 매우 급속한 사용의 증가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2> 뉴질랜드 및 타 국가 인터넷 사용 비율

수입과 관련한 인터넷 사용자 비율에서는 가계수입과 인터넷 사용율과는 상당히 긴밀한 플러스 관계를 보이고 있다. 수익이 NZ\$100,000 이상이 되는 가계는 7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져, NZ\$10,000 이하의 가구에서는 최저 12%를 기록하고 있다. 전자정부를 실행,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인식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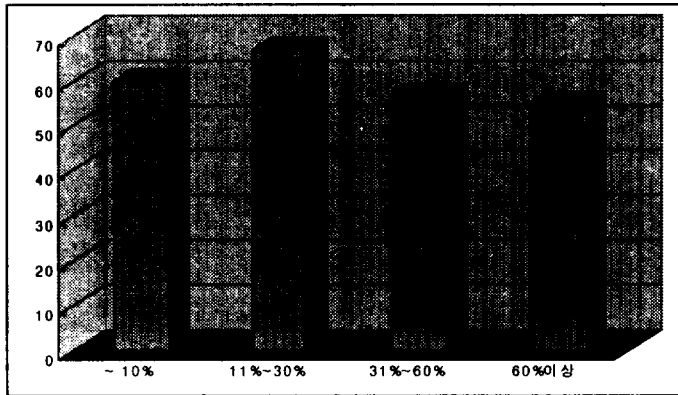


<그림 3> 뉴질랜드 가정 소득과 인터넷 사용 비율

3-2. 기업의 정보화 현황

3-2-1. 기업 내 종사자 인터넷 사용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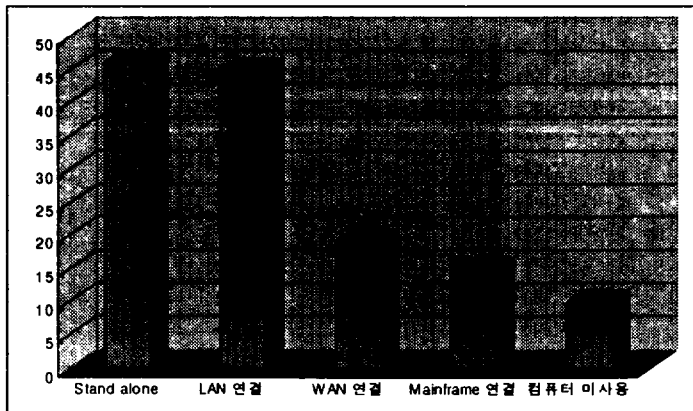
기업 내 종사자들의 인터넷 사용비율이 상당 부분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업체의 컴퓨터 활용 정도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60% 이상 컴퓨터를 업무진행에 활용한다는 기업이 37%에 달하고 있다. 이미 컴퓨터가 비즈니스를 실행하는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뉴질랜드 기업 내 종사자들의 인터넷 사용 비율

3-2-2. 기업 내 컴퓨터 인프라 구축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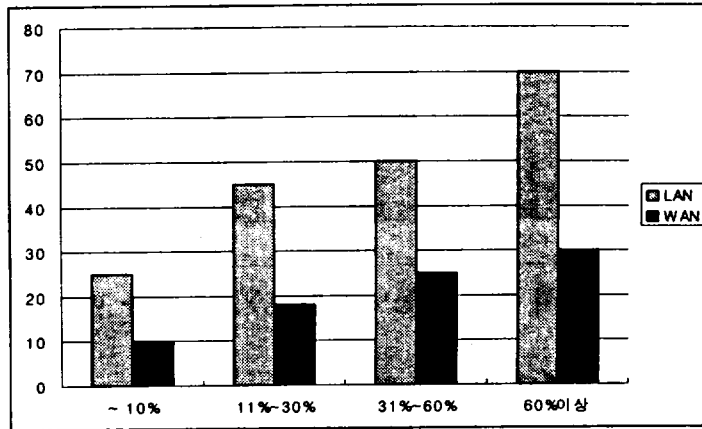
기업의 컴퓨터 인프라 구축 정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네트워크가 안 된 Stand alone 이 많으며, 지역 망에 연결된 컴퓨터가 바로 뒤를 이어 비슷한 규모의 구축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5〉 뉴질랜드 기업 내 컴퓨터 인프라 구축 정도

3-2-3. 기업 직원의 LAN/WAN 활용정도

기업 직원의 인터넷 활용 정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LAN/WAN을 60%이상 사용하는 기업들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LAN의 사용이 WAN의 사용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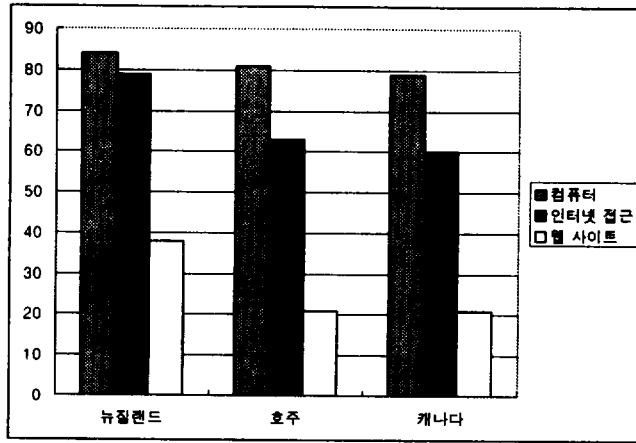


〈그림 6〉 뉴질랜드 기업 내 직원들의 인터넷 활용 정도

3-2-4. 뉴질랜드, 호주 및 캐나다 기업의 IT 활용 비교

다음 그림과 같이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기업들의 IT활용을 비교하면 의외로 뉴질랜드가 컴퓨터 사용, 인터넷 접근, 웹 사이트 운영 등의 비율 측면에서 가장 높다. 여기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는 온라인을 활용한 비즈니스 및 IT가 매우 잘 발달한 나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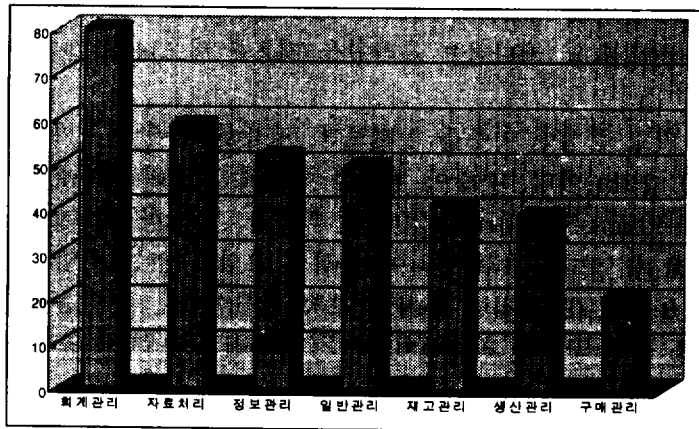
이 세 국가를 비교 분석한 이유를 살펴보면, 광대한 땅에 인구가 별로 없는 목축, 낙농 및 곡물이 주 수입원이며, 관광이 발달한 전형적인 전원 국가들로서(New Zealan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2002), 환경을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 보호에 힘쓰는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하여 환경의 오염이 없는 사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아이티 부분에 대한 집중 투자도 그의 일환이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세 개의 유사성을 가진 국가를 비교하였을 시, 뉴질랜드가 IT의 활용부분에 있어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림 7〉 뉴질랜드와 타 국가 IT 활용 비교

3-2-5. 비즈니스 운영에의 IT 활용 부분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 IT의 활용사항에서는 회계시스템, 데이터처리, 정보관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를 진행함에 있어 어떤 IT의 활용 비율에 대한 점을 조사한 바를 분석하면, 회계부분이 월등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처리, 정보의 관리, 일반 관리 부분에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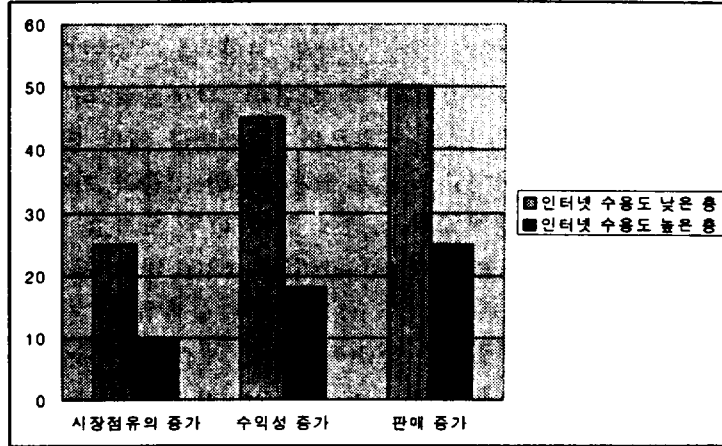


〈그림 8〉 뉴질랜드의 IT의 비즈니스 활용도

3-2-6. 인터넷 활용 기업 비즈니스 성과측정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를 측정에 있어, 인터넷 활용정도와 시장의 점유율, 이윤의 증가율 그리고 매출의 증가율 측면에서 비교를 실행 하였다. 인터넷 활용 정도와 업체의 생산성 현황을 보면, 인터넷을 사업진행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업일 수록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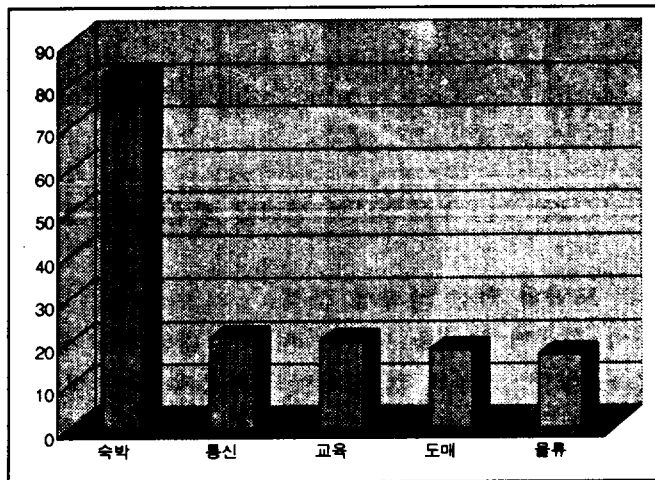
점유율, 수익성, 매출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측면에서 인터넷을 잘 활용한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그림 9〉 뉴질랜드의 IT 생산성

3-2-6. 산업별 인터넷 활용 온라인판매 비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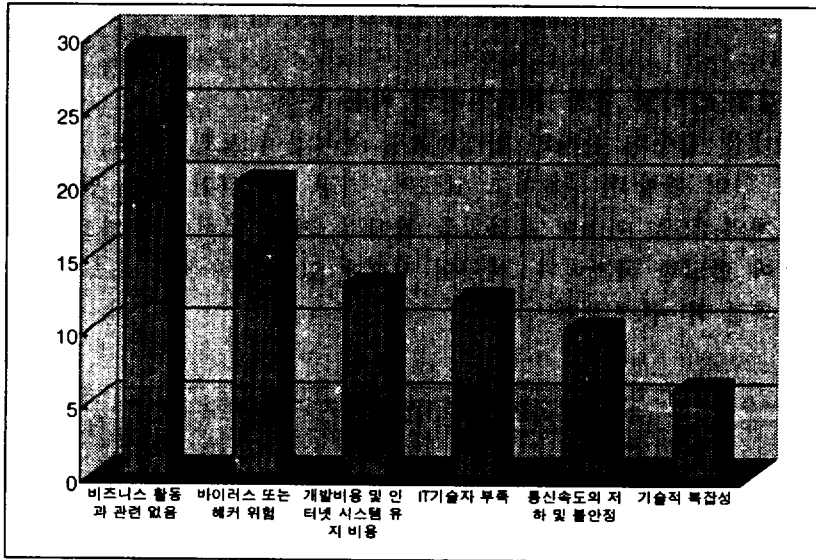
산업별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판매비율을 분석하여 보면, 숙박, 통신, 교육, 도매, 그리고 물류에 있어 활발히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두드러진 활용 면을 보여주는 것은 숙박으로서 업계의 85% 이상이 온라인을 판매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뉴질랜드가 여행이 발달한 국가이며, 예약이 여행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 상당히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가 있다.



〈그림 10〉 뉴질랜드의 인터넷 활용 온라인 판매비율

3-2-7. 기업 인터넷 활용의 방해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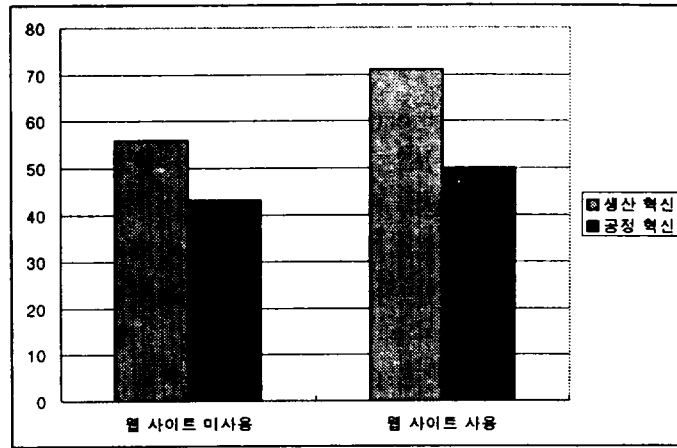
기업들의 인터넷 활용에 있어 방해요인들은 인터넷과 상관없다는 것과 해커, 바이러스 등의 위험 때문에 인터넷 사용의 장애로 제시되고 있다. 인터넷을 기업의 비즈니스에 활용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가장 많은 대답을 차지 한 것이 바로 '비즈니스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가 꼽혔다. 다음으로 바이러스 또는 해커들의 공격으로 인한 비밀정보의 누출이 뒤를 이었으며,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비용의 부담 또한 중요한 점으로 인식이 되었다. IT 기술을 활용할만한 기술을 가진 사람 즉 직원의 부재도 상당한 요인이 되었으며, 정보교환 측면에 있어 너무 느리고 안정적이지 않다는 기술적 문제를 제기한 비즈니스 그룹 또한 조사기업의 13% 정도 차지하였다. 기술적으로 사용이 복잡해서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약 6%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이유들 보다 비즈니스의 직접적인 연계의 부재, 시스템의 불신 그리고 비용문제가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뉴질랜드의 인터넷 활용 장애 요인

3-2-7. 웹 사이트 도입의 혁신 영향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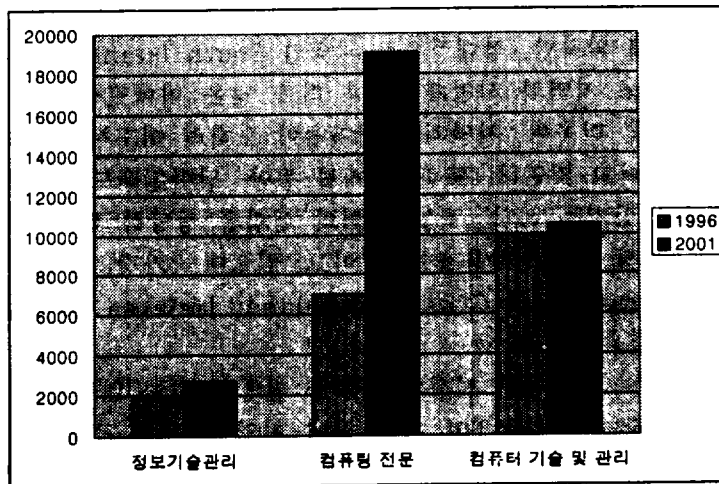
웹 사이트의 도입이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대해서는 생산 혁신, 공정 혁신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웹 사이트의 활용과 생산 및 공정에 있어서의 혁신 비율을 살펴보면, 웹 사이트를 활용하는 기업이 생산 및 공정 모든 면에 있어 더욱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 사이트 활용이라는 측면 또한 실질적으로 혁신의 일부로 볼 수가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다른 결과물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그림 12〉 뉴질랜드의 웹 사이트 도입의 혁신 정도

3-2-8. IT 분야 기술인력 현황

IT분야 기술인력 현황에서는 점차 그 비율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과 2001년의 IT분야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교 조사한 결과를 보면, IT 관리, 경영자 측면에 약 35%의 증가를 보이며, 컴퓨터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약 2.7 배가량의 획기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년 동안 IT 계열의 산업이 상당히 급속하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뉴질랜드는 400만이 채 안 되는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호주와 더불어 상당한 IT 강국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시스템 또한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림 13〉 뉴질랜드의 기술인력 현황

Ⅲ. 뉴질랜드의 e-비즈니스 추진 관련 개별 프로젝트 소개

뉴질랜드에서는 ECAT(E- Commerce Action Team)이라는 실행 조직을 구축하였다. 이 조직은 산업분야의 전문가 또는 EC의 개별적인 전문가들로서 구성이 되어있으며, ECAT의 정부단위의 궁극적 설립 목적으로서, 지역적 그리고 특정 산업별로 소규모의 ECAT 팀을 구성하는데 지원, 중소기업 및 소규모 지역의 상인들에 좀더 나은 비즈니스의 정보화 활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의 지원 아래 행하여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집, 커뮤니티 및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E-Government) 전략 측면에서 2004년까지 인터넷을 정부의 정보, 서비스 그리고 업무의 진행에 있어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온라인화 시키고자 하는 전략이다.

3-1. ECAT

3-1-1. 추진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 기술의 획기적 발전은 세계화, 다원화의 흐름과 함께 정부와 공공부문의 활동양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배용환, 2001). 뉴질랜드 정부 역시 e-commerce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확립 시키는데 있어 정부의 역할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정부, 사업자 그리고 커뮤니티 간에 있어 파트너십(제휴), 즉 정보의 원활한 교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설립하였다(www.med.govt.nz).

2000년 9월 조사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외곽인 South Island 지역의 사업체들이 중심지인 North Island 지역의 사업체들보다 더욱 많은 이메일을 비즈니스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지역의 사업체들이 오히려 대도시의 경쟁 사업체들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16개월 동안, 남아일랜드 및 지역의 사업체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특정 지역의 랭킹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 지역 사업체들이 현재 가장 높은 사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극심한 순위의 변화는 Taranaki, Manawatu, West Coast, Southland, Hawkes Bay 등의 시골에서 나타나고 있다(www.morst.govt.nz).

한 가지 원인으로서 그 극심한 변화의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10위안의 8개 업체가 2000년과 2002년에 ECAT의 지원 하에 지역 ECAT EVENT가 열린 곳이다. 이런 정부 주도의 적극적 정책의 조장 및 지역 상인들의 강한 연대를 생성하게 한 것이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데 추진력이 되었음이 추론 가능하다.

3-1-2. 주요 사업 개요

다양한 사업 분야에 있어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개인 및 사업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mini ECAT의 설립 지원, 즉 일정지역 또는 특정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띄는 ECAT을 지속적으로 설립하여 정보의 공유를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그리고 e-commerce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러한 정부의 ECAT 설립 목적은, 지역적 그리고 특정 산업별로 소규모의 ECAT 팀을 구성하는데 지원을 하기 위함에 있다. 이는 정부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정책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참가단체들의 현황*을 보면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 집단임을 알 수가 있다.

3-1-3. 쟁점사항 및 시사점

1600명 이상의 비즈니스 담당자들이 7개 지역의 메인 e-commerce 활성화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다른 기타 소규모의 회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소규모의 그룹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으며 와이카도 지역이 이벤트 결과로서 여섯 개의 회사가 참여하여, e-commerce상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활용되었던 좋은 e-commerce의 사례를 발굴, 케이스 스터디로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하여 정부의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계획에 있어 상당히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많은 ECAT의 일원들이 정부의 개발정책에 참여하고 있어 정부와 실제 참여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갭(Gap)을 많이 줄이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인식이 되고 있다.

주요 ECAT의 멤버들은 아주 활동적으로 지역의 e-commerce의 이벤트에 참여하여 개혁 등을 주제를 강연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소규모 ECAT 팀 및 사업자들은 지속적으로 ECAT의 활동에 대하여 긍정적 측면을 인지, 그 활용의 범위 및 전문성이

* New Zealand Bankers' Association (뉴질랜드 은행 연합)

- Business NZ (뉴질랜드 비즈니스 그룹)
- Wellington Regional Chamber of Commerce (informally representing all chambers):
웰링턴 지역 상공회의소; 비공식적으로 모든 상공회의소를 대표함
- Federated Farmers of New Zealand (뉴질랜드 농부연합회)
-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New Zealand(뉴질랜드 정보기술연합)
-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of New Zealand(뉴질랜드 공인 회계사 연합)
- Local Government New Zealand (뉴질랜드 지방정부)
- New Zealand Council of Trade Unions (뉴질랜드 무역연합)
- New Zealand Law Society (뉴질랜드 법조인 위원회)
- Telecommunications Users Association of New Zealand(뉴질랜드 통신사용자 연합)
- Tourism Industry Association New Zealand(뉴질랜드 여행 사업자 연합회)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 2004년도에 ECAT팀은 조직을 더욱 증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ECAT는 그 활동의 산출을 극대화시키고, 뉴질랜드의 e-commerce를 진행, 발전시키는데 지속적인 인지도향상을 위하여 현재 투자의 증대 및 최상의 방안을 고안 중에 있다. 현재 기획된 제안으로서, 뉴질랜드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정규 ECAT 이벤트와 세미나를 실행하는 것이고 e-commerce의 빠른 확산을 위하여, 온라인 능력 배양 프로그램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모임 형태의 팀 조직은 뉴질랜드의 e-비즈니스 활성화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며 발전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3-2. 전자 정부

3-2-1. 추진배경 및 목적

정보 및 통신에 있어 세계는 거의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 PC, 그리고 휴대폰은 일상에 있어서의 일, 학습 그리고 상호교류에 있어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정의 컴퓨터 보급율이 5년 이내 70%까지 상승할 것이고, 인터넷은 우편물보다 더 친숙해질 것이며 통신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전자 정부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 함으로서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뉴질랜드정부는 전자정부(e-government)를 활용하여 정부서비스 전달 방식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 보다 저렴하고 사용하기 쉽고 인간적이고 친숙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전자정부는 정부에게 있어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한 정부의 정보 및 서비스의 접근,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민주주의적 제도의 마련 과정에 있어 더욱 확대된 참여의 기회제공을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술 활용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전자정부는 행정기관의 문제가 아닌 민간기업 부문과 일반국민의 관심이 증척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Taylor, 2003).

뉴질랜드는 더욱 발달되고 비용에 있어 효과적인 정부의 서비스 그리고 국민과 정부간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21세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임을 비전으로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3-2-2. 주요 사업 개요

본 사업의 목표는 전자정부(E-Government) 전략 측면에서 2004년까지 인터넷을 정부의 정보, 서비스 그리고 업무의 진행에 있어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시키고자 하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추진 기간은 2000년 4월부터 전자정부의 전략을 발표하여 지금까지 실행해 오고 있는 중이다. 추진 예산은 1,600만 뉴질랜드 달러(661만 미국달러) 투입되며 약 800 억원이 예산을 확정,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기관 및 역할로는 뉴질랜드가 정부 정보와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국가서비스위원회(SSC: State Service Commission) 내에 전자정부 전담기구를 설치하였다. SSC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처 및 정부기관의 전자정부 전략을 개발하는 위원회이며, SSC 산하의 e-government unit은 공통시스템과 데이터관리정책, 표준, 가이드라인 등 포괄적인 전자정부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이다. 정부 정책조차도 중추적인 관리조직의 부재로 여러 부처가 동일분야, 유사성격 과제를 중복적으로 진행하여 인력 및 재원이 손실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서상범, 2005) 전문 부서를 설치함으로써 통합적 그리고 전문적인 연구 및 개발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전자조달시스템(GoProcure) 구현 계획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표 1〉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단계

단계	주요행정서비스	개방 국가수
(1)시작단계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	32개국
(2)발전단계	콘텐츠나 정보가 주기적으로 현행화	65개국
(3)상호작용단계	이메일 등을 통한 의사소통 및 민원양식의 전자적 제공	55개국
(4)전자거래단계	비자, 여권, 출생(사망)기록 등 온라인 발급, 조세 및 수수료 등 전자 납부	17개국
(5)통합처리단계	부처 및 기관 간 경계 없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없음

본 사업의 추진내용은 정부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온라인화 시키고자 하는 전략이다. 전자정부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이 그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이며 국민의 정부로부터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특히 각 기관간의 정보 교환이 용이하여 집에 따라 더욱 편리하고 확실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법안, 규정, 정책 그리고 서비스에 대하여 새롭고 더욱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표 2〉 전자정부 구축으로 인한 주요 발전, 변화 사항

현재	2005년
온라인을 통하여 회사법인을 등록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	국민과 기업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등록사항(생일, 사망, 결혼 등)을 언제 어디서나(국외지역 포함)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

<p>고용주들은 IRD (국세청) 온라인으로 PAYE 계획을 전달하고 더 이상 세무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p>	<p>국민들이 IRD 온라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처리 가능 기타 비즈니스 온라인과 연결된 유사한 모든 민원 처리</p>
<p>뉴질랜드 정부 온라인(www.govt.nz) 또는 개별 기관의 웹 사이트를 통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와 동일한 채널에서 더 많은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모든 정부 양식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전자적으로 전달 가능한 모든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 - NZGO는 정부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단일 접속점임
<p>정부 자문위원회는 대부분 비상임 기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함 지속적이고 개방적인 새로운 형태의 자문위원회 (예: 연구과학기술부(Ministry of Research, Science & Technology)의 Foresight Project)</p>	<p>국민들이 상설 자문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더 광범위한 사람들이 다양하고 빈번하게 정책결정 과정에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 마련</p>
<p>정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정부, 기업의 전자거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서명과 보안기술 관련 법령 및 정책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음</p>	<p>보안, 개인정보, 전자거래의 안전을 위한 기술, 법령, 정책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신뢰성을 강화해 나감</p>
<p>토지조사를 관리하고 관련된 프로세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토지온라인 시스템(Landonline System)을 개발 중임</p>	<p>토지 온라인은 전자적으로 관련 기관을 연결하고 문서를 이송 재산권 거래를 지연시키는 오버헤드와 재정거래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p>
<p>주소가 변경된 경우 수작업으로 많은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고</p>	<p>변경된 주소나 기타 변경 정보를 한번만 기록하면 정부에서 필요한 모든 곳에 자동으로 전달</p>

IV. 결론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단계에서 뉴질랜드는 (4)단계인* 전자 거래단계를 완전히 구축한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 세계 어느 나라도 부처 및 기관 간 경계 없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처리 시스템의 구축에 성공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술의 구현 및 운영에 있어서 예상보다 어렵고 정부기관들은 각 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는 '맞춤형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전 정부차원의 시스템은 조달정보

* 표 1 참조

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보다 표준화된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것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시스템에서는 뉴질랜드는 두 번에 걸쳐 비전을 발표하였는데 1999년 9월 뉴질랜드 정부조직(NZGO: New Zealand Government Organizations) 웹 사이트(www.govt.nz)를 개설하며 최초의 전자정부 비전을 발표하였으며, 2000년 5월 1일 E-Government: A Vision for New Zealanders라는 두 번째의 전자정부 비전을 발표하였다. 1999년 전자정부 비전은 전자정부 전담기구인 E-Government Unit이 설치되기 이전에 발표된 것이고 2000년 4월 비전은 E-Government Unit가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해 발표한 비전이다. 완성된 전자정부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E-Government Unit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3년 뉴질랜드 전자정부 구축의 평가에서는 2003년 미국 공공행정학회 (ASPS)와 유엔 사무국이 발표한 전자정부 평가 순위가 1.미국, 2.호주에 이어 3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상당히 성공적으로 전자정부의 구성 노력의 결실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전자정부 구축으로 인한 주요 발전, 변화 사항

순위	국가	지수	순위	국가	지수	순위	국가	지수
1	미국	3.11	6	영국	2.52	13	핀란드	2.33
2	호주	2.60	8	네덜란드	2.51	13	프랑스	2.33
3	뉴질랜드	2.59	9	덴마크	2.47	15	한국	2.30
4	싱가폴	2.58	10	독일	2.46	19	이탈리아	2.21
5	노르웨이	2.55	11	스웨덴	2.45	25	오스트리아	2.14
6	캐나다	2.52	12	벨기에	2.39	26	일본	2.12

(출처 : E Government Benchmarking, UNDPEPA / ASPA, 2003.6)

뉴질랜드 정부의 현 난관은 영국정부가 각 정부기관들이 단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도록 여러 번 시도하고 실패했던 사례와 유사하며, 영국정부는 현재 각 부처들이 공유된 전자조달시스템 채택을 꺼려함에 따라 개별 부처시스템들이 상호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운용성 표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정책에 있어 이미 실패의 경험이 있는 영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많으며, 전자정부단위(e-government unit)의 역할 수행 측면에서 더욱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뉴질랜드의 사례는 현재 제주도의 자치도라는 환경 하에서 추구할 e-비즈니스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배웅환, 2001,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행정학 연구에 적용탐색, 한국행정연구, 10호, p.258

배준호, 1999, 뉴질랜드 개혁과 시사점, 한신대 학교 논문

서상범, 2005, 기술 성숙도를 고려한 첨단물류기술 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pp.153-154

Earnest & Young, 1996, Doing Business in Business, Earnest & Young, p25

Miller Raymond, 2003, New Zealand government and politics, 3rd edition, Auckland, N.Z.: Oxford University Press, pp.124

New Zealan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2002, New Zealand Industries and Regions: Outlook and issues to., Wellington(NZ), p.36

Taylor Nelson Sofres, 2003, Government Online Study, Yale University Press, p.249

United Nations, 2002.6, Benchmarking E-government: A global perspective - Assessing the progress of the UN member states

www.cia.gov

www.countryranking.com

www.ecat.govt.nz

www.ecommerce.govt.nz

www.govt.nz

www.ipc.go.kr

www.kota.or.kr

www.morst.govt.nz

www.med.govt.nz

www.nzherald.co.nz

www.seoul.go.kr

www.stats.govt.nz